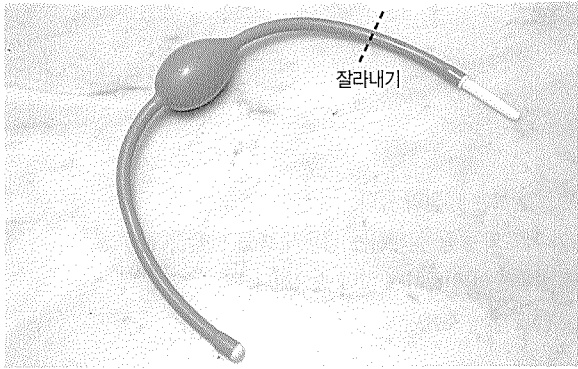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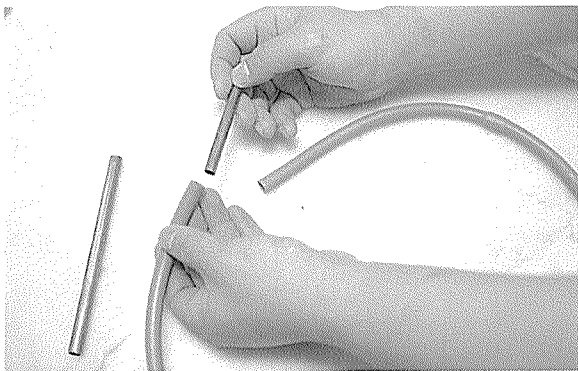


설탕 공예용 펌프, 3,000원이면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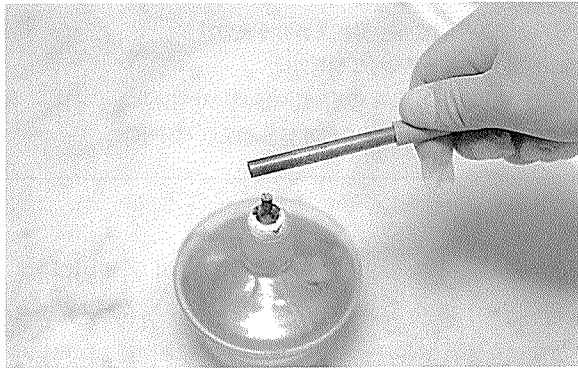
〈진행·허미경 / 사진·안성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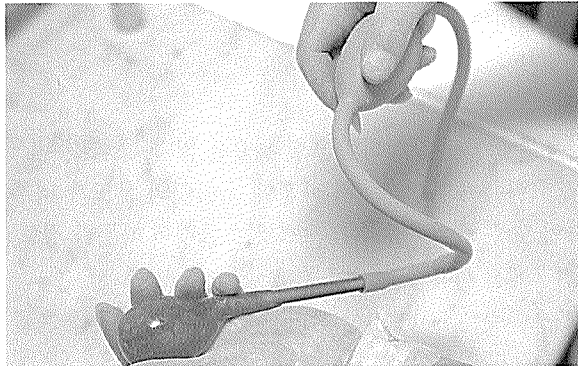
▲ 실리콘 재질의 의료용 펌프는 설탕공예용 펌프보다 약간 길다. 먼저, 플라스틱관이 있는 쪽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낸다.



▲ 지름 8mm 정도의 동파이프를 고무관 끝에 끼워준다. 다양한 크기의 동파이프는 청계천 전문 상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10cm 정도로 적은 양은 말만 잘하면 공짜로 받을 수도...



▲ 설탕 반죽을 감싸기 전에 동파이프 끝을 불로 달궈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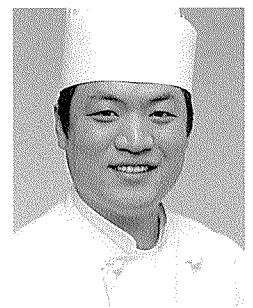
▲ 설탕공예용 펌프 완성! 설탕 반죽을 부풀려 보자~

제과 경연대회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각종 공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상품성을 증시하는 일반 제품과는 달리 화려한 개인기를 뽐낼 수 있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낼 수 있는 매력이 젊은 기술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설탕 공예는 현란한 빛깔과 수십여가지 기법 등으로 공예의 꽃이라 불리워도 좋을 만큼 아름답다.

설탕 공예는 당기(티레), 부풀리기(수플레), 붓기(쿨레) 등의 기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기법들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예용 기구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판매되는 고가품(高價品)이므로 모든 기술인이 장비를 보유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설탕 반죽을 부풀려 모양을 내는 수플레 기법을 할 때는 설탕 공예용 펌프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개 일본 등 해외에 갔을 때 구입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당 20여만원의 만만치 않은 금액에 선뜻 구입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기술인들도 적지 않다.

이에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의료용 펌프(관장용)다. 언뜻 보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양도 비슷하고, 원래 제품 구입가의 1/60도 안되는 3,000~5,000원으로 부족함 없는 작업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누구든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윗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부럽게만 쳐다보던 초급 기술인들에게 1개씩 나누어 주어도 한 점포당 몇 만원도 들지 않은 의료용 펌프는 종로 6가를 비롯한 의료기 상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신정우
빵고를 생산 책임자